

인류세의 성 정치학: 조에 평등주의와 페미니즘의 재구성*

이 명 호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사회구성주의에 기초한 기존 페미니즘의 이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페미니즘의 공리적 명제로 작용하는 섹스/젠더구분과 이 구분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가 섹스를 젠더의 효과로 재배치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푸코적 담론구성주의는 그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물질과 신체를 담론 속으로 휘발시켜 버리는 문제점을 노정한다. 이런 문제점을 교정하려면 담론구성주의의 통찰력을 받아들이면서도 담론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지 않으면서 물질의 행위성과 활동성을 인정하는 사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물질적 전환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루스 이리가래의 성차이론과 그것을 다윈의 성선택과 연결시키는 엘리자베스 그로츠의 최근 논의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사회 구성주의적 시각에 매인 기존 페미니즘의 인간 중심주의적 한계를 돌파하여 생명의 본원적 힘과 만나는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으로의 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지구 생명의 절멸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인류세 시대에 페미니즘은 인간집단들 내부의 평등만이 아니라 생명 종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 수립을 통해 지구 행성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자연, 물질, 성차, 성선택, 생기론적 유물론, 원소적 유물론, 젠더, 구성주의, 주디스 버틀러, 루스 이리가래, 엘리자베스 그로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919).

1. 구성주의적 페미니즘: 물질과 자연으로부터의 퇴각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된다”(one is not born a woman, but rather becomes one)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문장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sex)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gender)을 구분하고 여성의 차별과 종속을 철폐할 근거를 ‘구성된 것’에서 찾는 근대 페미니즘의 정언명제로 작용해왔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된 것은 여성이 갖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몸 때문이 아니라, 그 몸에 부과된 사회문화적 의미 때문이라는 것을 이 문장은 명징하게 전달한다. 구성된 것은 탈구성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 여성의 종속이 자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면, 여성은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결정론에서 벗어나려면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고, 섹스/젠더 구분은 이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쌍이었다. 페미니즘이 여성 불평등을 자연적 소여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논리를 격파하려면, 이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했다.

여성 불평등의 기원을 사회문화적인 것에서 찾는 이런 시각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려는 ‘평등 페미니즘’ 뿐 아니라 남성과 다름을 주장하는 ‘차이 페미니즘’의 여러 형태들에도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작용한다. 인간이라는 보편의 범주에서 여성이 배제되어온 역사를 비판하며 여성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평등 페미니즘은 여성의 자연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 만드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변혁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고자 한다. 그런 만큼 자연적 차이는 평등 페미니즘의 일차적 관심사에서 비껴나 있다. 남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름에 주목한 ‘차이 페미니즘’도 그 차이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들에 한정할 때 자연적 차이를 논의에서 배제한다. 여성의 물질적 욕구에 주목하는 일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환경주의적 관점을 택하는 에코 페미니즘을 제외할 경우, 20세기 페미니즘의 주도적 흐름은 자연에서 벗어

나려는 경향을 보여 왔고, 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20세기 페미니즘에 나타나는 이런 경향성은 자연이라는 물질이 여성을 옥죄는 생물학적 구속이자 질곡이며, 이 질곡에서 벗어나야 여성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반자연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신체와 자연의 물질성을 페미니스트 사유와 실천 속으로 적절히 포괄해 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자연을 인간이 제어해야 할 대상이거나 문화의 개입을 기다리는 빈 서판(empty slate)으로 바라보는 근대적 자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자연주의적·반물질주의적 사유의 배경에 구성주의적 시각이 놓여 있다. 물론 구성주의적 시각은 여성의 억압과 차별을 사회적 구성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적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의의가 있다. 이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여성을 열등한 종속적 존재로 규정해온 남근중심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드러내고 그 권력을 해체시키는 데 구성주의적 관점은 특히 유용했다. 포스트모던적 사유와 결합한 형태의 구성주의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그 본질과 정체성을 규정지을 수 없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담론 구성물로 규정한다. 반본질주의적·반정체성주의적 사유가 권력의 토대를 허무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자연과 물질을 담론 속으로 휘발시켜 버리는 문제를 노정한다. 이런 문제점에 주목한 새로운 세대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포스트모던적 담론주의에 대해 “페미니즘의 이론적 토대로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¹⁾

‘언어학적 전회’로 명명되는 20세기 (탈)구조주의적 사유는 자연과 문화, 물질과 담론, 실재와 언어의 이분법적 대립을 해체하려고 했지만, 자연과 물질 대신 문화와 담론이라는 한 쪽을 취했을 뿐 이분법을 진정

1) Stacy Alaimo and Susan Heckman, “Introduction: Emerging Models of Materiality in Feminist Theory,” *Material Feminisms*, ed. Stacy Alaimo and Susan Heckman,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P, 2008, p.2

으로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 기호의 세계를 실재의 세계에서 독립된 자의적 의미화질서로 바라보는 구조주의 언어학적 사유와 그것을 차용하는 여러 형태의 담론적 사유는 자연과 물질과 실재를 희생하고 문화와 언어와 담론을 택했다. 이들의 선택이 비판이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은 담론구성주의가 절정을 이루고 있던 199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이 진단이 본격적으로 내려진 것은 2004년 『크리티컬 인콰이어리』(*Critical Inquiry*)에 실린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논문이다. 「어떻게 비판은 김이 빠졌는가?: 사실의 문제에서 관심의 문제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라투르는 지난 30년간 비판이론을 지배해온 구성주의적 문제들이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직격탄을 날린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권력, 사회, 담론에 자동적으로 기대는 설명들은 이제 그 효용성이 다해서 가장 속기 쉬운 비판에 먹이감을 던져줄 만큼 퇴화했다”고 한다.²⁾ 라투르가 보기에 비판이론의 미래는 “사실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경험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주의를 재생하는 것”에 달려있다(231). 이를 위해서는 “강고한 실재론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라투르의 입장이다(231). 여기서 우리는 구성주의가 비판이론의 장에서 배제했던 경험적 실재가 복귀하는 것을 목격한다.

구성주의적 문제들을 공유하는 페미니즘이 자연과 물질에서 퇴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퇴각이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물질과 자연을 담론의 효과이자 그 산물로 바라보는 구성주의적 페미니즘은 물질과 자연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왔다. 지난 20년간 몸에 대한 연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대부분은 몸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고 있을 뿐 살아있는 신체와 그 신체의 감각과 체험 그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또한 인간세계를 넘어서는 자연과 물질을 사유해야 한다는 에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실재에 대한 소박한 낭만주의적 개

2) Bruno Latour,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From Matters of Facts to Matters of Concern,” *Critical Inquiry* 30.2, 2004, p.229

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주변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스테이지 알라이모(Stacy Alaimo)가 주장하듯이, 시몬느 드 보부아르에서 게일 루빈과 주디스 버틀러에 이르기까지 20세기를 주도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여성을 자연에서 분리하고 “자연에서 도피”해왔다.³⁾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이 자연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면 할수록 자연은 여성혐오증이라는 위험한 수렁으로 재소환된다. 가부장적 사유는 여성을 “자연”과 묶어놓으면서 인간의 초월성과 주체성 바깥에 여성을 위치시킨다. 에코 페미니스트들은 비단 비인간 자연 뿐 아니라 여성들, 제 3세계 사람들, 토착 원주민들, 유색인종들에게도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자연과 문화의 분리’에 반대해왔다. 이제 우리는 자연을 인간의 착취에 다소곳이 봉헌되는 유순한 자원이나 사회적인 것이 각인되는 수동적 물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자연을 새롭게 사유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페미니즘 논의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는 섹스와 젠더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입장을 넘어서서 양자의 연결성과 뒤얽힘을 이론화하는 사유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젠더 범주에 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성차(sexual difference) 개념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구성주의적 시각의 한 극단을 보여주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논의를 비판적으로 읽어낸 후, 자연과의 재접속을 시도하는 루스 이리가레(Luce Irigaray)와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의 성차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인간이 지구행성의 절멸 원인이 되어가고 있는 ‘인류세’ 시대에 인간 문화질서 내에서의 젠더 투쟁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포함한 생명체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페미니즘,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뒤얽혀 상호구성적 함께 만들기를 시도하는 페미니즘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3) Stacy Alaimo, “Trans-Corporeal Feminism and the Ethical Space of Nature,” *Material Feminisms*, ed. Stacy Alaimo and Susan Heckman,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P, 2008, p. 239.

2. 버틀러의 젠더 트리플 기획

주디스 버틀러는 담론 구성주의를 젠더 이론과 퀴어 이론에 적용하여 섹스, 젠더, 젠더 정체성 등 모든 단단해 보이는 것들을 해체하는 대표적인 퀴어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보부아르의 섹스/젠더 이분법에 흥미하게 남아있던 섹스를 젠더의 수행적 효과(performative effect)로 재배치함으로써 섹스의 결정성을 해체한다.

젠더화된 주체에 대한 이런 급진적 분리는 또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 우리는 섹스와 젠더가, 혹은 섹스나 젠더가 어떤 수단을 통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먼저 묻지 않은 채 “주어진” 섹스나 “주어진” 젠더를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섹스”란 무엇인가? 섹스는 자연적, 해부학적, 염색체적, 호르몬적인 것인가? 페미니스트 비평가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확정해 주고자 하는 과학담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섹스에는 역사가 존재하는가? 각각의 섹스에는 다른 역사나 역사들이 존재하는가? 섹스의 이중성이 확정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역사, 이분법적 선택지들을 가변적 구성물로 드러내는 계보학은 존재하는가? 섹스라는, 표면상으로 자연적 사실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다양한 과학담론들에 의해 담론적으로 생산되는 것인가? 섹스의 불변적 성격이 문제시된다면, 섹스라 불리는 이 구성물은 젠더만큼이나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섹스는 이미 언제나 젠더이고, 그 결과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구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섹스 그 자체가 젠더화된 범주라면 젠더를 섹스에 대한 문화적 해석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젠더는 미리 주어진 섹스에 문화적 의미를 각인하는 것(사법적 개념)으로만 사유되어서는 안 되며, 섹스 자체를 확정하는 생산 장치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섹스가 자연과 연관되는 것처럼 젠더가 문화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젠더는 “섹스화된 자연”이나 “자연적 섹스”가 문화에 선행하는 전(前)담론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문화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

치적으로 중립적인 표면으로 생산되고 확정되는 담론적/문화적 수단이기도 하다.⁴⁾

섹스를 젠더의 원인이 아니라 그 효과로 배치하고자 하는 버틀러의 의도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을 찾을 수는 없다. 섹스는 젠더가 각인되기 전에 미리 주어진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구성된 것은 구성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지 않으며,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변화 가능한 것이다.

섹스/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버틀러의 기획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자연의 삭제이다. “지금까지 섹스가 자연이고 젠더가 문화로 구분되었다면 섹스의 젠더화가 도달하는 최종 종착점은 자연의 문화화이기 때문이다. 이제 자연은 문화의 결과이자 효과에 지나지 않게 된다. 페미니즘이 섹스와 젠더를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했던 것은 여성 억압의 생물학적 결정론과 숙명론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는데, 버틀러는 이 구분 속에 남아있던 자연의 미미한 흔적마저 지워버린다.”⁵⁾ 인간의 문화에 맞서는 자연의 저항을 최종적으로 격퇴시키고 나면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오롯이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이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것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푸코의 권력 담론을 비롯한 서구의 반인간주의적 담론 구성주의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는 바이며, 버틀러 역시 이 사상적 흐름 안에 있다. 담론구성주의는 인간을 담론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그 효과이자 결과로 본다. “버틀러처럼 수행성 개념을 도입하여 구성하는 행위의 능동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위 뒤에 행위자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으며 행위가 행위자의 의도를 투명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하지

4)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p. 7.

5) 이명호, 「젠더 트러블과 성차의 윤리학」,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문학동네, 2014, 32쪽. 이 부분의 논의는 필자의 위 글에 대한 간략한 요약에 담고 있다.

도 않는다. 행위자는 행위를 통해 가변적으로 구성되며 행위자의 의도를 초과해서 형성된다.’⁶⁾ 하지만 인간이 담론이 만든 제도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해도 탈구성하거나 재구성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담론이라는 우연적 의미화의 영역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각축장이 되면 의미화할 수 없는 것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나게 된다. 버틀러가 섹스를 젠더에 선행하는 자연적 소여가 아닌 젠더구성물로 바라보고, 섹스/젠더의 구분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젠더를 구성물이라고 했을 때 젠더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본질적 속성(properties)이나 자질(qualities)이 아니라 관계(relation) 혹은 관계들의 집합체(asmblage)이다. 이 관계의 집합체를 바꾸면 젠더의 성격도 바꿀 수 있다. 더욱이 “젠더는 그 총체성이 영원히 지연되어 특정한 국면에서 온전히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복합체이다. (...) 젠더는 정의의 종결이라는 규범적 텔로스에 복속되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열린 집합체가 될 것이다.”⁷⁾ 버틀러는 의미의 종결이 지연되는 열린 과정 속으로 젠더를 열어놓으면서 모든 고정된 것들을 해체시킨다. ‘여성’이라는 본질은 없으며, ‘남성’이라는 본질도 없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는 규범적 이성애체제라는 젠더장치가 만들어낸 허구적 구성물일 뿐이고, 그 의미구성은 사회적 투쟁에 열려 있다.

버틀러가 보기에 규범적 이성애 체제가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매트릭스이자 권력체계라면, 그 규범을 해체하거나 재구축하면 젠더의 성격도 바꿀 수 있다. 이제 수행적 행위를 통해 규범적 이성애 젠더 권력을 전복하는 작업이 쿼어 정치학을 포함한 페미니즘의 정치적 실천이 된다. 버틀러는 가부장적 이성애 규범이 구성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젠더 정체성과 동성애와 이성애라는 성 정체성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패러디

6) 위의 글, 33쪽.

7)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p.16.

적 반복을 감행함으로써 ‘복수’의 가변적 정체성들이 각축하는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탈본질화’, ‘탈자연화’하는 이런 시도가 1990년대 이후 영미권 페미니즘과 퀴어 정치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올라서면서, 섹스의 흔적에 여전히 매여 있는 ‘올드’ 페미니즘은 젠더의 자유로운 유희를 가로막는 낡은 유물이자 형이상학적 토대에 매여 있는 본질주의로 비판된다.

그러나 탈구조주의적 담론구성주의를 통해 섹스가 소거되면서 페미니즘 사유와 정치에서 ‘자연’과 ‘물질’은 사라진다. 그와 함께 자연 속에서 다른 생명존재들과 뒤얽혀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물질적 몸을 지닌 존재도 담론 속으로 휘발되어 버린다. 물론 담론구성주의자들이 신체의 물질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버틀러는 젠더체제의 규범이 우리의 신체에 각인되면서 특정 개체나 집단의 신체를 ‘여성적 몸’이나 ‘남성적 몸’으로 재현하는 ‘물질화하는 효과’(mattering effects)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⁸⁾ 신체가 물질적인 것은 신체에 각인된 의미화질서 및 담론의 관행들이 그 자체로 물질적일 뿐 아니라 반복적 수행을 통해 물질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질성이란 담론 자체의 물질성과 담론이 만들어내는 물질적 효과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담론 바깥에 존재하면서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담론과 상호작용하는 물질의 물질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버틀러는 담론이 만들어내는 물질적 효과 ‘이전에’ 존재하는 물질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젠더의 수행적 행위 이전에 그 효과에 앞서서 존재하는 섹스로, 문화 이전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신체의 물질성은 담론 ‘이후에’ 구성되는 물질성으로 남아있다. 버틀러는 담론 “이전”이나 제도적 법 “이전”이라는 시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잔재, 본질주의라는 낡은 유산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 물질성, 물질화하는 효과 등등의 용어들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긴 하

8)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1993, pp 1-30.

지만, 버틀러가 ‘물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테면, 엘리자베스 윌슨(Elizabeth Wilson)은 버틀러가 “매개되지 않은 생명활동 그 자체의 정치성을 사유하지 않고 “생명활동에 ‘비판적인’ 젠더 개념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⁹⁾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담론 구성과 담론 비판의 중요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담론의 범위가 살아있는 물질적 몸과 신체활동을 완전히 접수함으로써 담론 바깥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확장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여성들은 몸을 가지고 있다. 몸은 전시되고 표현될 뿐 아니라 쾌락을 경험하고 통증을 느끼며 질병을 앓기도 한다. 생생하게 살아 꿈틀거리며 활동하는 몸에 다가가려면 담론의 물질성을 넘어서는 물질적 차원을 인정하면서, 담론과 물질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신체가 담론적으로 구성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론적 구성물이 비담론적인 물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이 필요에 부응하는 작업은 구성주의의 통찰을 버리지 않으면서 구성주의를 넘어서는 길을 찾는 것이다.

3. 페미니즘의 재자연화와 성차의 소환: 루스 이리가레와 엘리자베스 그로츠

이 다른 길 찾기는 자연과 물질을 새롭게 사유하는 작업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단초를 생기론적 유물론(vital materialism)이라 불리는 사유를 페미니즘적으로 전유하는 일련의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흐름에는 제인 베넷(Jane Bennet),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idotti), 클레어 콜브룩(Claire Colebrook),

9) Elizabeth A. Wilson, *Neural Geographies: Feminism and the Microstructures of Cognition*, New York: Routledge, 1998, pp. 54, 62.

카렌 바라드(Karen Barad) 같이 스피노자-들뢰즈적 일원론적 유물론을 취하는 입장부터 루스 이리가레(Luce Irigaray)처럼 자연을 그리스적 의미의 ‘퀴시스’(physis), 즉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고 생성하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의 원소적 토대로서 자연에 주목하는 ‘원소적 유물론’(elemental materialism)까지 들어갈 수 있다.¹⁰⁾

이리가레는 자연이 사회문화적 가능성에 제한을 가하는 족쇄라고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문제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을 협소한 생물학적 설명으로 환원하는 것이고, 그 설명도 남성중심주의적 관점으로 채색하는 것이다. 이리가레에게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면서 문화적 존재이다. 또한 문화는 자연의 극복이나 지양이 아니라 자연에 내재된 잠재력을 키우고 가꾸는(cultivate) 것이다. 이리가레의 생각처럼 문화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을 키우는 형태이고 자연적인 것이 문화적인 것의 출현 조건이라면,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과 사유가 필요하다. 그것은 자연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고 있으며, 성차화되어 있음(sexed)을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다. 생성으로서의 자연과 성차화된 것으로서의 자연은 이리가레의 자연관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이리가레는 하이데거가 읽어낸 초기 그리스적 의미의 ‘퀴시스’ 개념에서 생성으로서의 자연관을 끌어내면서도, “하나”에 머물러 있는 하이데거의 퀴시스 개념에 성차를 도입하여 자연을 최소한 ‘둘’로, 잠재적으로는 ‘여럿’으로 변형시킨다.

생기론적 유물론은 인간 중심적 담론구성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핵심을 이룬다. 베르그송을 거쳐 스피노자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입장은 물질을 수동적 재료, 활기 없는 무력한 질료가 아니

10) 후기 이리가레의 자연관을 원소적 유물론으로 읽어내는 참신한 시각으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Alice Stone, “Irigaray’s Ecological Phenomenology: Towards an Elemental Materialism,” *The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40, 2015.

라 생동하는 행위성의 원천으로서 언제나 인간의 몸과 얽혀 있는 역동적이며 활력 넘치는 사물이라고 본다. 인간만이 아니라 물질도 힘이 있고, 사건을 촉발하는 활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조직적이고 생성적이다. 물질은 수많은 다른 물질 및 힘과 배치를 이루고, 서로 간섭하고 협력하며 공동작용을 수행한다. 인간과 물질 사이에는 이분법적 대립이나 존재론적 위계가 없다. 인간도 생동하는 물질들의 배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생동하는 물질들의 세계는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뒤얽혀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고 효과가 현행화되는 평평한 내재성의 장이며, 이 장에는 차이를 생성하는 잠재적인 힘이 흐른다.

물질과 그 배치에 대한 이런 시각은 자연을 재정의함으로써 근대 페미니즘이 도피해왔던 자연과 다시 연결될 길을 열어준다. 생기론적 유물론에서 자연은 문화에 의해 각인되고 구성되고 착취되는 무형의 텅 빈 자원이 아니며,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동성애 공포증을 일으키는 부정적 저장고도 아니다. 오히려, 자연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동적 힘이며, 문화와 공동작용을 수행하는 활력의 행위자이다. 또한 자연은 문화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문화와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연”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유기체와 비유기체 행위자들 사이에서 차이와 연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일단 자연이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며 열린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면, 해방적 포스트휴머니즘을 구상할 수 있다. 인간은 물질 위에서 물질에 맞서는 어떤 정신적 실체가 아니다. 그렇다고 유전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물질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인간의 문화는 문화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조직을 획득한 물질이다.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가 “판 세상의 대화”(otherworldly conversation)라 부르는 종들간의 상호관계는 생명의 터전으로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각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상호 변형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윤리적 관계의 한 모델을 보여준다.¹¹⁾

이런 생기론적 유물론의 관점은 버틀러의 담론구성주의가 지워버렸

던 ‘섹스’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버틀러가 자연/문화의 이분법을 자연을 문화화함으로써 해체하는 노선을 취했다면, 엘리자베스 그로츠는 다른 행로를 찾는다. 그로츠는 루스 이리가레의 성차 개념을 다윈의 진화론, 특히 성 선택론과 연결시켜 사유하면서 물질적 존재로서 성차를 새롭게 해석한다. 다윈과 이리가레를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그로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많은 오해를 받아온 이리가레의 성차 개념을 잠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성차는 섹스와 구별되는 범주로서 젠더의 중요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섹스와 젠더를 연결시켜 사유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리가레에게 성차(sexuate difference)는 동일한 성적 특성을 취하지 않는 두 존재 사이의 환원할 수 없는 비대칭적 차이이다.¹²⁾ 한 성(sex)은 다른 성의 몸이나 지각으로 건너갈 수 없다. 두 성, 잠재적으로는 여러 성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과 차이가 존재한다. 성차는 몸의 형태학적 차이이고 그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한 지각방식의 차이이다.¹³⁾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신체적 차이를 해부학적 차이로 읽어내지만, 이 몸의 차이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낯 것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 의미의 매개를 거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몸의 차이는 ‘주어진 것’이지만 ‘주어진 것’이 ‘고정된 불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의 섹

11) Donna J. Haraway, “Otherwordly Conversations, Terran Topics, Local Terms, in *Material Feminisms* ed. Stacy Alaimo & Susan Hekman,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P, 2008, p. 174.

12) Luce Irigaray, “Preface” in *Thinking the Difference: For a Peaceful Revolution*, trans. Karen Mouth, London: Routledge, 1994, ix. ‘sexuate’는 이리가레가 만든 프랑스어 신조어 ‘sexué’의 영어 번역어이다. 이리가레는 성적 존재가 되는 관계적, 심리적, 문화적, 신체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어냈다. ‘sexuate’는 ‘sexual’과 호환되기도 하지만, 성적 차원을 포괄하되 좁은 의미의 성(sexuality)을 넘어서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성적 되기(sexual becoming)의 과정을 가리킨다.

13) Luce Irigaray, “Thinking Life as a Relation,” *Conversations*, trans. and eds. Stephen Pluhacek et al., London: Continuum, 2008, p.5.

스는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으로서 미결정 상태이다. 이는 자연을 죽어있는 물질로, 따라서 고정 불변의 운명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자연 자체의 자기 증식적, 자기변형적 힘을 인정하는 관점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한다. 섹스는 문화의 효과에 지나지 않는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스스로 생성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증식하는 살아있는 힘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형태와 에너지와 리듬을 지니고 있다. 자기 증식하는 생성적 힘으로서의 성차는 문화적 차원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성차는 ‘자연과 문화의 연속체’이다. 성차가 현존하는 양성의 특성, 가부장제가 규정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젠더적 특성에만 묶이지 않고 미지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성차화된 문화와 정치는 각각의 섹스가 자신의 고유한 모양과 리듬에 맞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꾸고 키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다양한 종류의 가부장적 역사이기 때문에 성차는 남성이라는 하나의 성에 종속된 상보적 대립물로 환원되어 왔다. 남성이라는 동일성 체제 하에서 여성은 남성이 아닌 성, 남성에 미달하는 성, 남성을 되비추는 성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반사적 여성성’(speculative femininity)으로 소진되지 않는 차이들, 남성 담론에 의해 지워졌으나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남성담론의 잉여로 존재하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초기 이리가레는 이 ‘잉여적 여성성’(excessive femininity)을 복원해내기 위해 ‘두 입술’과 같이 여성의 신체를 연상시키는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신체 결정론과 본질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¹⁴⁾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리가레는 신체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기반으로 여성의 신체 지각에 기초한 새로운 주체 구성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후기 이리가레는 자연주의자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

14) Luce Irigaray, “When Our Two Lips Speak,”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Catherine Porter. Ithaca, Cornell UP, 1985.

지 않고 생성과 재생의 자리로서, 문화의 원천이자 그 변형의 힘으로서 자연을 긍정한다. 이리가레에게 (최소한 ‘둘’로, 잠재적으로는 ‘여럿’으로 나뉘는) 성적 분화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자연은 남성과 여성, 적어도 둘이다. 자연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극복하려는 모든 사유는 자연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어떤 것을 넘어서려면—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연은 **둘**이다. (이 **둘**에는 이자적 차이, 이를테면 더 작고/큰, 더 젊고/늙은 등과 같은 차이가 포함된다.) 보편적인 것은 하나로 사유되어왔고, 하나의 토대 위에서 사유되어왔다. 그러나 이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 자체에 한계가 새겨져있다. 자연을 넘어서실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자연이 **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둘은 자연적인 것 자체에 유한성을 새긴다. 어느 한 자연도 자연적인 것의 전체와 같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단수적 실체로서 대문자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⁵⁾

초기 이리가레는 서구담론의 남근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하나이지 않은 성”(this sex which is not one)을 주장했다면, 여기서 “하나이지 않은 성”은 ‘둘’이라는 숫자로 구체화되면서 인간의 담론 세계만이 아니라 자연세계의 존재양태를 설명하는 핵심어구가 된다. (최소한) 둘로 존재하는 성차는 생명의 생산과 재생산 조건의 표현이면서 모든 생명형태에 보편적이다. “이런 성적 분화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 종에게만 고유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세계를 가로지른다. 성적 분화가 없다면 생명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성차가 없다면 지상에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¹⁶⁾

15) Luce Irigaray, *I Love to You: Sketch of a Possible Felicity in History*, trans. Alison Martin, New York: Routledge, 1996, p. 46.

그로츠는 이리가레의 성차이론을 다윈의 성선택 가설과 연결시켜 성차가 갖는 자연적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놀라운 가설을 세운다. 그는 이리가레의 성차 개념이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에게서 예기치 않은 지원군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윈에게 성 선택은 다양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일탈과 변이의 메커니즘을 이룬다. 다윈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후대로 전해져 내려올 때 주위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는 형질이 선택되어 살아남아 유전됨으로써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생물 개체는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적응하여 여러 가지 변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중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이다. 그러나 다윈은 생물의 진화에 자연선택 외에 성 선택(sexual selection)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윈은 1871년 자신의 저서 『인간의 계보, 선택과 성의 연관성』(*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에서 공작 수컷의 화려한 꼬리처럼 눈에 잘 띄고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기관이 왜 발달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성 선택 가설을 내세운다. 수컷 공작의 꼬리와 같은 기관은 자연선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물의 암컷과 수컷 사이에는 서로 간에 선호하는 형질이 있기 때문에 그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생물이 다른 성의 선택을 받아 더 많은 자손을 남겨 해당 형질이 선택되고 강화된다는 것이다. 논자에 따라 성 선택은 큰 틀에서 자연 선택의 일부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로츠는 성 선택이 자연 선택과 분리되어 있고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원리라고 주장한다.¹⁷⁾ 성 선택은 자연 선택의 원리를 미적으로 일탈하는 생명의 충동이다. 이 미적 일탈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새로운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의 원천이다.

생명의 역동적 진화과정에서 성 선택은 모든 생명체의 제거될 수 없

16) Ibid, p. 35.

17) Elizabeth Grosz, “The Nature of Sexual Difference: Irigaray and Darwin *Angelaki*: *Journal of Theoretical Humanities* 17. 2, 2012, p.81.

는 특성이다. 이 생동하는 생성적 힘으로서의 성과 성차를 인간의 문화와 제도적 규범으로 포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로츠의 생각이다. 그로츠는 성과 성차를 문화적으로 키워주고, 규범적 이성애 질서에서 성적 억압을 겪고 있는 소수자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페미니즘이 재자연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은 자연과 실재의 힘의 문제로, 세계의 자연과 힘의 문제로, 역사적 힘 뿐 아니라 우주적 힘의 문제로 거듭 돌아갈 필요가 있다.”¹⁸⁾ 그로츠는 역사주의적이고 사회 구성주의적 시각에 매인 기존 페미니즘의 인간 중심주의적 한계를 돌파하여 생명의 본원적 힘과 만나기 위해 새로운 ‘존재론’을 주장한다. 그는 이 새로운 존재론의 든든한 동행자를 이리가래의 성차이론에서 발견하고 성차이론을 다윈의 진화론과 연결시킨다. 이리가래의 성차이론은 생명이 둘로 분화되어왔다는 것, 자연 자체가 역사적 우연을 초월하는 둘의 형태를 취하며 변형되어왔다고 말한다. 성적 차이가 없다면 단성만 존재할 것이고, 생명의 창조적 분화와 변이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츠에게 성차는 성 선택이라는 진화의 원리와 맞닿아 있는 생명의 역동적 힘으로서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미래는 언제나 성차를 담을 것이며 성차를 표현할 것이다”¹⁹⁾라고 그는 말한다. 다만, 그로츠에게 성차는 이리가래처럼 ‘둘’에만 머물지는 않고 “천개의 작은 섹스들”로 분화, 변이, 증식되어 갈 것이다. 이 생명의 힘으로서의 섹슈얼리티를 ‘비오스’(도시국가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인간생명)와 ‘조에’(동물적 삶으로서의 생명)로 위계적으로 구획하거나, ‘젠더’라는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사회적 장치 안으로 포획해 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그로츠의 시각에 공감함을 표하면서 “젠더 없는 섹슈얼리티”를 사유하고, 인간에게만 할당된 비오스를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모두에게 열린 조에

18) Elizabeth Grosz, *Becoming Undone: Darwinian Reflections on Life, Politics, and Art*, Durham, N. C.: Duke UP, 2011, p.85.

19) Ibid, p.111.

의 근원적 힘과 재접속시키자고 주장한다. 그는 조예와 비오스를 횡단하는 ‘종 평등주의’(species egalitarianism)를 인류세 시대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비전으로 제안한다.²⁰⁾

4. 인류세 시대의 페미니즘: 조예 평등주의로 열린 페미니즘의 재구성

원래 지질학적 개념으로 등장했던 인류세(the Anthropocene)라는 말이 인문사회과학에도 두루 사용되는 어휘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지도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애초 인류세는 2000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린 지구환경 국제회의에서 화학자 파울 크뤼첸(Paul Crutzen)이 1만 년 전 시작된 현 홀로세(the Holocene)와 구분되는 새로운 지질 시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지구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큼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다. 이후 인류세는 인간이 초래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와 ‘제 6 절멸’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말로 인식되고 있다.

인류세라는 용어는 역설적 함의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들의 운명에 파국적 불화를 일으키고 지질학적 힘을 행사할 만큼 ‘예외적’임을 드러내면서, 그 예외성을 지구행성이라는 더 큰 생명질서 속으로 편입시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무차별적 생명의 질서 속으로 인간 종을 다시 포함시키지 않는 한 파국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국을 피하려면 만물의 척도로서 인간과 예외적 종으로서 안트로포스가 생명질서에서 더 이상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관점의 전환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중심이 아니라

20) Rosi Braidotti, “Four Theses on Posthuman Feminism” *Anthropocene Feminism* ed. Richard Grusin,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 2017, pp.32-37.

지구 중심의 프레임에서 행성적 시각을 견지하고, 자연사와 인간사라는 구분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문학의 형질변화를 요구한다.

페미니즘은 언제나 “누구”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의 주체성이 발화의 문법에 전제되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인간이라는 형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그 형상 아래 포섭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를테면, 인간의 권리(the right of man)를 선언할 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는 그 인간이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 물음을 통해 그 인간이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가부장 남자이고, 노예와의 관계에서는 주인이며, 식민지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제국주의자임을 밝혀냈다. 울프턴크래프트 이후 다양한 유형의 페미니스트들은 인간의 형상으로 제출된 것들을 특정한 사회정치적 “위치”에 놓으면서 그 제약성을 넓혀 나갔다. 이 확장의 과정이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인간이 지구 행성에 거주하는 다른 생물종들과 관계에서 단일 ‘종’으로서 호명될 때, 페미니즘은 다시 그 인간이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 인류세라는 지질학적 이름을 얻을 만큼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인간, 이른바 ‘인류세적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는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인류세라는 문제설정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 젠더화된 관계를 문제 삼았던 페미니즘에 사유의 확장을 요구한다. 인류세는 자연과 문화를 분리시키고 문화질서 내에서 젠더투쟁에 집중해온 근대 페미니즘의 시야를 넓혀 자연의 생성적 힘과 재접속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인간이 지구 행성의 절멸 원인이 되어 가고 있는 ‘인류세 시대’에 페미니즘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이 그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을 넘어서선 보다 큰 생명질서로 시각을 넓혀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은 남성의 시간과 여성의 시간, 인간의 시간과 지질의 시간, 역사의 시간과 생명의 시간, 정치의 시간과 물질의 시간을 이동하면서 양자를 새롭게 결합시켜야 할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제는 페미니즘의 관심을 문화구성과 주체에 대한 인식론

적 문제에서 자연, 물질, 생명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로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생명에 기초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질 수 있다. 최근 인류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린 후퍼(Lynne Hoffer)는 “생명 그 자체가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제 페미니즘은 인간집단들 내부의 평등만이 아니라 생명 종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 수립을 통해 지구 행성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투쟁하고 헌신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있다. 물론 생명 종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 수립을 위한 페미니즘의 관심의 확장이 인간 집단 내부의 문제나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논의에서 지젝이 브르노 라투르의 포스트휴먼 집합체(assemlage)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오로지 정확히 인간 주체로서만 우리는 우리가 속한 행위주체들의 집합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탈인간적 관점’을 취할 수 있다”²¹⁾고 주장하며, 인간의 가치와 신념의 문제를 손쉽게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의 관점을 초월할 수 있다거나 인간의 사회역사적 문제를 쉽게 건너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점을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경계를 수용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역사와 생명의 연결고리에 대한 한층 심화된 사유와 의식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 글에서 부분적으로 시도했지만, 성차 범주는 생명세계의 일부로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괄해 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리가레의 성차이론이 기초한 원소적 유물론과 생기론적 유물론의 관계, 담론과 물질의 상호 얽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점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21)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코로나 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강우성 옮김. 북하우스, 2020, 142쪽.

■ 참고문헌

-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성차의 문화정치』. 문학동네, 2014.
-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코로나 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강우성 옮김. 북하우스, 2020.
- Alaimo, Stacy, “Trans-Corporeal Feminisms and the Ethical Space of Nature,” *Material Feminisms*. ed. Stacy Alaimo & Susan Hekman,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P, 2008.
- Barad, Karen, “Getting Real: Technoscientific Practices and the Materialization of Reality,” *differences* 10.2., 1996.
- Braidotti, Rosi, “Four Theses on Posthuman Feminism,” *Anthropocene Feminism* ed. Richard Grusin,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 2017.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 _____,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1993.
- Grosz, Elizabeth, *Becoming Undone: Darwinian Reflections on Life, Politics, and Art*. Durham, N. C.: Duke UP, 2011.
- _____, “The Nature of Sexual Difference: Irigaray and Darwin,” *Angelaki: Journal of Theoretical Humanities* 17. 2, 2012.
- Haraway, Donna J, “Otherworldly Conversations, Terran Topics, Local Terms,” in *Material Feminisms* ed. Stacy Alaimo & Susan Heckman.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P, 2008.
- Huffer, Lynn, “Foucault’s Fossils: Life Itself and the Return to Nature” in *Feminist Philosophy*,” *Anthropocen Feminism* Ed. Richard Grusin.

-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7.
- Irigaray, Luce, "Preface" in *Thinking the Difference: For a Peaceful Revolution*, trans. Karen Mouth. London: Routledge, 1994.
- _____, *I Love to You: Sketch of a Possible Felicity in History*, trans. Alison Martin. New York: Routledge, 1993.
- _____, "Thinking Life as a Relation" *Conversations*, trans. and eds. Stephen Pluhaeczek *et al.* London: Continnum, 2008.
- Latour, Bruno,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From Matters of Facts to Matters of Concern," *Critical Inquiry* (30.2), 2004.
- Stone, Alice, "Irigaray's Ecological Phenomenology: Towards an Elemental Materialism," *The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40.2), 2015.
- Wilson, Elizabeth A, *Neural Geographies: Feminism and the Microstructures of Cognition*. New York: Routledge, 1998.

❖ ABSTRACT

The Sexual Politics of the Anthropocene:
Zoe Equalitarianism and the Reformulation of
Feminism

Lee, Myungho
Kyung Hee University

This essay starts by addressing the need for a theoretical transition of feminism based on social constructionism. Judith Butler's Foucaudian discursive constructionism discloses the dangers of evaporating nature, material, and body into discourse by deconstructing the sex/gender distinction, and repositioning sex as the effects of gender. In order to correct this problem, I argue, we need to propose a new theoretical paradigm called, "material turn," in which discourse and material are not opposed, and the agency and activity of material are acknowledged without sacrificing the insights of discursive constructionism. This paper finds the existence of this possibility in Luce Irigaray's conception of sexual difference, and Elizabeth Grosz's innovative combination of Irigaray's theory with Charles Darwin's conception of sexual selection. These two arguments can serve as powerful theoretical supports for the transition to a posthuman feminism that goes beyond humanism tied to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so-called Anthropocene era, where the human is seen to be the cause of the extinction of all lives on the Earth, feminism needs to reformulate itself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urvival and sustainability of the Earth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qual relationships among all life species as well as within human groups.

Key Words : Nature, Material, Sexual difference, Sexual selection, Vital materialism, Elemental materialism, Constructionism, Judith Butler, Luce Irigaray, Elizabeth Grosz

■ 논문접수일 : 2021. 02. 10

■ 심사완료일 : 2021. 03. 14

■ 게재확정일 : 2021. 03. 15